2024년 3월 26일

크로스에셋/해외주식 Strategist 김일혁, CFA, FRM
02-6114-2951 holistic@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Global Insights

선거가 아직까지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경제보다는 사회 의제에 더 집중하는 양당. 주요한 경제 정책들 모두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을 전망

- 미국 대선이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11월 선거까지 224일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시간상 거리가 있어서 영향이 적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제와 크게 상관없는 사회 의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음. 공화당이 경제를 공략하기에는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고, 민주당이 경제에 집중하더라도 경제를 잘 관리했다는 것이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건 아님
- 1) 반도체 전략. 미국 정부는 한국-대만-일본과 반도체 동맹 (Chip 4 Alliance)을 맺고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반도체가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미국 정치권이 공유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도체법 (Chip Act)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 의회 권력이 재편된다고 해도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생산기지가 되기 위해 미국 기업 (인텔, 마이크론)을 지원하면서 해외 기업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 2) 조세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증세 정책을 입법하는 건 의회의 몫. 그리고 의회 양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음. 상원은 공화당이 50석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경합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하면 3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공화당은 이미 204~216석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어떤 예측을 보더라도 경합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하원에서 확보했다고 평가되는 의석 수 차이는 미미하지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6곳 중에서 5곳에서 공화당이 확보했다고 보는 의석 수가 많음. 따라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확보하면서 증세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양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음. 양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다고 해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추가 감세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거나 현재와 같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당이 나누어 가진다면, 2017년에 공화당이 단독 처리했고 내년 말에 여러 항목들의 기한이 도래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큰 수정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법인세율은 기한과 상관없음). TCJA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연장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최근 TCJA에 대한 심층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 초 NBER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투자에 지출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정책의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 법안은 양당 합의 하에 1월에 하원을 통과한 바 있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아동수당 세액공제를 확대안을 담고 있고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음. 따라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하더라도, 이 법안이 연장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3) 친환경 정책.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음. 대규모 피해를 만든 이상 기후 현상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피해 지역에 대규모 재정 지원도 시행되면서, 유권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전에 비해 덜 느끼고 있음.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책에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 해하고 있음. 따라서 민주당도 친환경 정책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임신중지 (낙태)처럼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의제에 집중.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예상됐던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주식에 대한 기대는 정부 정책보다 스스로 약해진 게 사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업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고점을 형성했던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혹한기에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경험한 이후에 기대가 스스로 꺾인 게 사실

[미국 주요 주가지수]

다우 산업	**-0.41%**
S&P 500	**-0.31%**
나스닥 종합	**-0.27%**
러셀 2000	**+0.10%**

기술주 규제 소식에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3대 지수 하락. 중국 정부가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PC와 서버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거란 보도에 1.7%, 0.6% 하락. EU 규제당국이 빅테크 독과점에 대한 제재안인 디지털시장법 (DMA)에 따라 메타, 애플, 알파벳의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압박. 반면 러시아가 OPEC+ 감산에 동참한다는 소식에 WTI는 1.6%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이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

그림 1.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DIS	월트디즈니	219	컴스	3.0	4.8	31.1
2	COP	코노코필립스	148	에너지	2.6	5.0	8.0
3	TGT	타겟	80	필수소비	2.4	3.0	24.1
4	PYPL	페이팔	71	금융	1.9	2.8	6.7
5	AMGN	암젠	150	헬스케어	1.7	3.7	-0.4
6	ADBE	어도비	230	IT	1.5	-1.3	-15.3
7	AMT	아메리칸타워	91	부동산	1.4	-0.2	-8.4
8	BA	보잉	117	산업	1.4	6.4	-26.5
9	NEE	넥스트에라	129	유틸리티	1.3	4.1	5.8
10	VZ	버라이존	172	컴스	1.2	2.4	10.9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2.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DHR	다나허	183	헬스케어	-2.7	-1.5	7.7
2	MDLZ	몬델레즈	95	필수소비	-2.1	-0.6	0.1
3	MMM	3M	58	산업	-1.8	0.0	0.2
4	LOW	로우스	146	경기소비	-1.7	4.3	14.5
5	INTC	인텔	177	IT	-1.7	-2.1	-12.6
6	HD	홈디포	380	경기소비	-1.7	3.1	10.7
7	TMO	써모피셔사이언티픽	219	헬스케어	-1.6	-1.1	8.5
8	QCOM	퀄컴	187	IT	-1.5	0.4	17.3
9	MCD	맥도널드	201	경기소비	-1.4	0.0	-3.9
10	MSFT	마이크로소프트	3,142	IT	-1.4	1.3	13.1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3. S&P 100 편입종목 중 최근 1주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FDX	페덱스	70	산업	-0.6	11.6	14.5
2	AVGO	브로드컴	626	IT	-0.1	9.7	21.0
3	NVDA	엔비디아	2,375	IT	0.8	7.4	94.6
4	GM	GM	50	경기소비	1.1	6.7	21.3
5	BA	보잉	117	산업	1.4	6.4	-26.5
6	F	포드	50	경기소비	-0.1	5.9	7.2
7	SCHW	찰스슈왑	127	금융	-0.4	5.8	4.4
8	GS	골드만삭스	132	금융	-0.5	5.4	7.1
9	BKNG	부킹홀딩스	124	경기소비	0.1	5.1	2.8
10	COP	코노코필립스	148	에너지	2.6	5.0	8.0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4. S&P 100 편입종목 중 최근 1주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ACN	액센추어	224	IT	-1.1	-10.4	-5.5
2	AMD	AMD	289	IT	-0.6	-6.3	28.0
3	NKE	나이키	114	경기소비	-0.1	-5.1	-12.9
4	PM	필립모리스	142	필수소비	0.3	-3.1	-0.6
5	ABT	애보트	191	헬스케어	-0.5	-2.2	1.4
6	INTC	인텔	177	IT	-1.7	-2.1	-12.6
7	CHTR	인튜이트	42	컴스	0.0	-1.9	-23.9
8	WFC	웰스파고	203	금융	-0.7	-1.8	16.2
9	AAPL	애플	2,638	IT	-0.8	-1.7	-11.6
10	IBM	IBM	173	IT	-1.1	-1.5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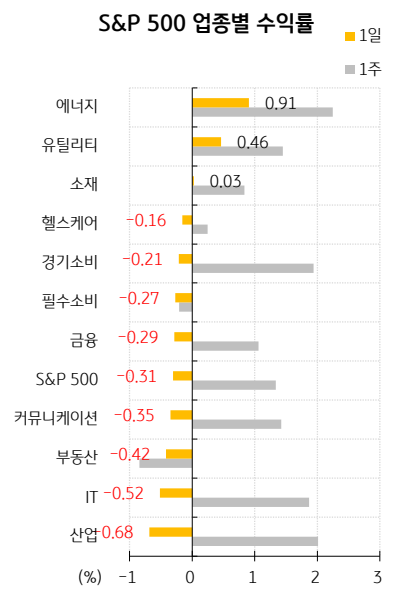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5. S&P 100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시가총액 순위	
					1D	1W	1M	3M	YTD	-1M	-1Y
1	MSFT	마이크로소프트	3,142	IT	-1.4	1.3	3.1	13.1	12.7	1	2
2	AAPL	애플	2,638	IT	-0.8	-1.7	-6.4	-11.6	-11.1	2	1
3	NVDA	엔비디아	2,375	IT	0.8	7.4	20.5	94.6	91.8	3	4
4	AMZN	아마존	1,867	경기소비	0.5	3.0	2.7	17.1	18.3	4	3
5	META	메타	1,107	컴스	-1.3	1.2	3.9	42.5	42.3	5	8
6	GOOGL	알파벳A	884	컴스	-0.5	1.6	4.2	6.1	7.4	6	6
7	GOOG	알파벳C	857	컴스	-0.4	1.8	4.0	5.9	7.3	7	5
8	LLY	일라이릴리	735	헬스케어	0.3	1.4	0.5	35.8	32.9	8	18
9	AVGO	브로드컴	626	IT	-0.1	9.7	4.7	21.0	21.6	10	23
10	JPM	JP모건체이스	561	금융	-0.9	1.1	5.9	17.1	15.2	12	14
11	TSLA	테슬라	550	경기소비	1.1	-0.7	-10.1	-31.6	-30.5	9	7
12	BRK.B	버크셔해서웨이	536	금융	-0.4	0.4	-1.7	15.0	14.9	11	12
13	WMT	월마트	488	필수소비	-0.5	-0.5	3.9	16.4	15.7	14	13
14	XOM	엑손모빌	455	에너지	1.0	2.1	10.4	13.6	15.7	17	10
15	UNH	유나이티드헬스그룹	448	헬스케어	-0.9	-0.2	-7.5	-6.2	-7.3	13	9
16	V	비자	445	금융	-0.7	-1.3	-0.8	9.0	8.2	15	15
17	MA	마스터카드	441	금융	-1.2	-0.6	0.6	12.4	11.8	16	17
18	HD	홈디포	380	경기소비	-1.7	3.1	3.7	10.7	11.3	20	20
19	PG	P&G	377	필수소비	-0.9	-0.6	-0.5	11.0	10.0	19	16
20	JNJ	존슨앤존슨	374	헬스케어	-0.0	-1.0	-4.1	0.6	-0.2	18	11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6. 업종별 수익률



자료: Factse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